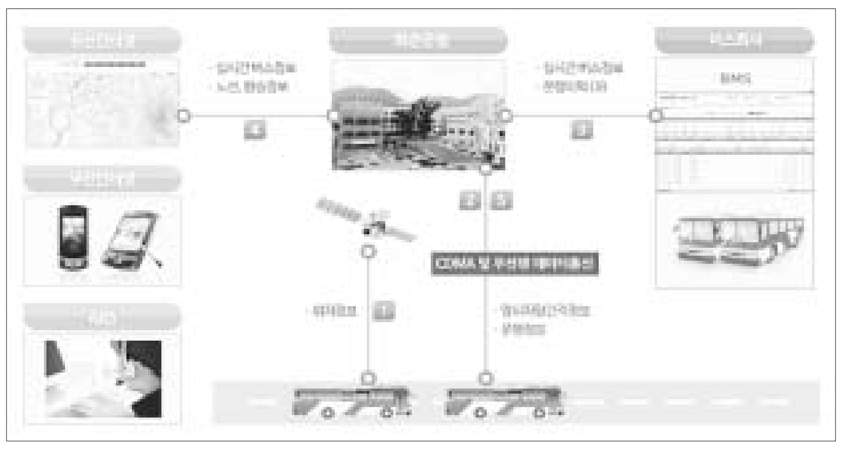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군, 군내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운전자 단말기' 3월까지 전면 교체…면 지역에도 BIT 설치



화순군이 27일 군내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송출하는 '운전자 단말기'를 3월까지 전면 교체하고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14년 광역버스 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 당시 군내버스에 '운전자 단말기'를 장착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통신 불량 등으로 정확한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낡은 '운전자 단말기'를 전면 교체해 '정확한 운행정보'를 제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버스 정보 단말기(BIT)도 추가 설치해 대중교통 편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18곳에 설치한 BIT를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면 지역부터 차례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운전자 단말기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BIT를 통해 버스 이용객에게 정확한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 운전자도 '앞뒤 차량의 간격 정보'를 활용해 여러 버스가 한꺼번에 정류장을 통과하는 오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운전자 단말기를 전면 교체해 BIT는 물론 유·무선 앱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우리 지역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함평군, 고품질 생대추 재배기술교육 실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28일 함평군 대추연구회원을 비롯한 지역 대추 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생대추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했다.

1:1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기초 전정법, 나무 수령에 맞는 수형 잡기 등을 중점 설명한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김영란 함평군 대추연구회장은 "읍·면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다보니 현장에서 배울게 많다"며, "이번에 배운 내용을 농가현장에 잘 적용해 재배기술 평준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추 생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협력해 현재까지 대추 200,000㎡를 식재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담양군,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 예방 총력'

담양군이 산불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달 말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군은 산림정원과와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산불취약지역에 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해 예방활동은 물론 논·밭두렁 무단 소각행위, 산불예방 홍보, 임대차량 등을 활용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산불 예방 계도 비행 등 입체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에는 마을별 공동소각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완료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림인접지역 내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무단소각행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건조한 봄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관광객 유치사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 성공적인 관광도시 붐 조성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강화에 나섰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9년 강진군 관광객 유치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여행작가의 '가고싶은 강진' 강연과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관광관련 주요사업과 관광지 소개 등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내여행 등록업체 관계자와 여행관련 언론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소개로 강진이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자리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텔, 리조트 등 숙소확충과 다산베아채골프장과 가우도 해양레저, 사의재 저잣거리 등 최신 여행트랜드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랑과 다산유적, 고려청자 도요지 등 문화자원이 더해진 강진군이 관광도시로 자리잡아 가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 항공여행사 김형미 대표는 "국내 선호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진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설명회를 통해 해결되었고 큰 호응이 예상되는 다산베아채와 가우도 해양레저는 신규상품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설 명절 맞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영암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31일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소이다.

점검반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기준 이행여부, 가격담합행위 및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기간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맞이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들과 영암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섬 지역으로 확대'

이달부터 화정·남면·삼산 보건지소 운영

여수시은 이번 달부터 도서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화정·남면·삼산면까지 확대한다.

물리치료실 확대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가운데 하나다.

시는 물리치료 의료장비 12종을 마련하고 물리치료사를 신규로 채용·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서지역 주민이 물리치료를 하려면 배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다"면서 "도서지역 물리치료실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까지 챙겨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7일과 28일 화정보건지소와 남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열었다. 오는 31일에는 삼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차릴 계획이다. 또 연차적으로 연도보건지소, 초도보건지소까지 물리치료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본격 돌입

곡성군이 최근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훼손지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섬진강 침실습지는 지난 2016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 내에는 655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흰꼬리수리, 수달, 삵, 남생이 등 7종의 멸종위기종과 하천습지 중 가장 많은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더불어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새벽안개와 어우러진 침실습지는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섬진강의 무릉도원이라고 불릴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침실습지의 보존과 생태적 이용을 위해 훼손지 복원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해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복원사업비 총 100억 원 중 올해 추진할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인공습지, 체험·관찰습지, 생태공원, 다목적 에코센터 등을 조성하여 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침실습지를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사전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침실습지의 우수성, 습지 보전 방안 등 습지 보전의 중요성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곡성=김광휘 기자